

소리소문 없이 이웃돕기 30년

감동의 자비 나눔 모임 부산 보현회 '주목'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는 보현회는 그동안 이웃들을 몰심양면으로 도왔다.

이웃집에 손자를 데리고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가 보이질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니 신경에 문제가 생겨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동네에 살던 젊은 주부 5명이 모여 쌀자루를 들고 탁발을 다녔다. 그렇게 모인 쌀로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됐다. 30여 년 전 일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만들어 진 것이 지금의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다).

어르신 수술비 지원 위한

탁발로 봉사 활동 시작

봉사자 300명 보살행 실천

세월뿐만이 아니다. 꼬깃꼬깃 모아 끼여이 함께 마음을 합치고자 마음을 낸 순수 자원봉사자들만 어느덧 300명에 이른다. 봉사 회원이 늘어 지난 2012년 9월 현재의 법당으로 이전했다.

보현회 회원들은 굳이 자신들의 보살행을 알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배고픔, 아픔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측은지심은 가득하지만 얼굴 내미는 일에는 마음 들어설 곳이 없는 것이다.

보현회의 사업은 그 순박한 태생처럼 딱

히 대상이 정해진 바가 없다.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상도와 전라도 어디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닌다. 또 스님들 대중공양에서부터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는 보현회는 일년 열두 달 그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다.

특히,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선행은 더욱 빛난다. 하지만 그로인해 그들의 선행이 사각지대가 됐다. 몇 해 전, 이들의 선행에 감복한 복지관 실무자들의 권유로 법인설립을 알아보다 그만 단념하고 말았다. 오랜 기간 남 잘되는 일 해왔지만 사진자료 하나 변변치 못해 정식절차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30년 동안 사진 한 장 없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한 회원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열심이 다 보니 선행을 알릴만한 자료는 남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올 해로 창립 30년을 맞이했지만 변변한 기념행사도 하나 치르지 못했다. 행사 치를 돈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돕겠다는 것이 보현회 봉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보현회 창단 이후 여지껏 회장을 맡은 안성이 회장에게 독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농담에 총무부 전영자 씨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회장인데, 지금까지는 더 열심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한바탕 웃음이 쏟아졌다.

보현회는 앞으로도 소리소문 없이 봉사를 이어갈 것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우학 스님 무문관 '천일정진'

12명 스님들과 용맹정진 돌입

12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1000일 수행 결사를 시작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은 5월 24일 부터 한국불교대학 경주 감포도량에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스님들은 앞으로 1000일 동안 각자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한 좁은 공간에서 하루 한끼 공양구로 들어오는 음식에만 의지한 채 묵언과 화두 정진을 계속하게 된다. 우학 스님은 "사찰 창건 21년 만에 한국불교대학을 한국의 대표적인 가람으로 키워왔지만 아직도 수행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과 함께 천일 수행 결사에 들어간다"고 길을 떠난 것으로 전한다.

우학 스님은 지난 21년간 지역아동센



무문관 천일 결사에 돌입한 우학 스님과 12명 스님들

터, 고아원, 학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장례식장, 납골당, 노인센터, NGO, 선방, 평생교육원, 국내의 여러 도량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며 성공적인 봉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신도들은 사경명상과 금강경 독송을 매일 하는 방법으로 우학 스님의 1000일 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스리랑카 직항 노선 개설 설명회

대한항공이 불교국가 스리랑카 직항 노선을 개설하면서 불자들의 성지순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 대구 지점과 성지순례 전문여행사인 '툼비니 항공여행사'는 5월30일 대구지역 불교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 '스리랑카 직항노선'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 대구지점은 설명회에서 "스리랑카는 불교유적이 많지만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적었다. 직항 노선 개설로 성지순례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전 죽림정사 경로잔치

대전 죽림정사(주지 광진스님)는 창건 25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29일 지역의 어르신들을 사찰로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암 주지 덕산 스님, 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 보안 스님, 박성호 국회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김금자 대덕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죽림정사는 매년 가정의 달 5일에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다. 또 지역의 소외계층에 연간 20kg 600포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사찰 인근의 4개 동에 위치한 경로당에 쌀과 과일, 떡 등을 격월로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혜승 기자**

부산생명나눔, 제6회 청소년 백일장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부산시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제6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5월 26일 서면 영광동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총 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당일 제시된 주제(고등부-여행, 그늘 / 중등부-기도, 가방)로 시, 산문 두 부문에서 기량을 펼치는 자리였다. 결과는 시부문 대



생명나눔 청소년 백일장 현장

상(부산광역시시장)에 황호준(경남고), 산문 대상(부산광역시시장)에 오승재(대동고) 등이 각각 수상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꾸꾸자

전통사찰 새 조형물 부조화 우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의 지정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녀야하고,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해야 하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사찰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국사찰이 지녀야 할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고문헌이나 발굴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교전래초기에 지어낸 사찰들은 대체로 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이 축선상에 배치되고, 회랑이 중심공간을 위

하는 형식을 가진다. 우리나라 사찰이 다른 나라의 사찰과 다른 것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석탑과 석등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석탑과 석등은 재료적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만 그것이 놓이는 위치도 같지 않다. 사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위치하는 석탑과 석등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찰의 아이콘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국사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최근에 역사가 오래된 전통사찰에서 지난날 우리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상한 형태의 조형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개인적 공간에 그것이 배치된다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사찰의 중심공간에 도입될 경우에는 오랜 세월 계승되어 온 한국사찰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서는 새로운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형태로 창작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잘못 만들어진 조형물이 한국사찰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울진군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의 전통사찰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문환경이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통사찰이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의 전통사찰이 한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해치는 봉사는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막아야한다.



오래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형물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청남도 사사할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대법회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 6월 8일(토) 오전 10시

전국 전세계의 불자 여러분!

천불천탑도량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 오는 6월 8일 국가 안녕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그동안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발원하며 일심으로 사경하셨던 법화경 사경을 머리에 이고 천불천탑을 돌며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스러운 이 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 일백만 법화경자 합장

행사일정표

- 6월 8일
- 오전 10:00 헌공 및 설법
- 오후 1:00 산사음악회
- 3:00 사경봉안식
- 8:00 철야정진법회(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천안역 셔틀버스 운행안내

- 전철 1호선 천안역 하차
- 서부광장 주차장 출발(오전 8시 ~ 11시)
- 구룡사 행사장 도착



로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출연)

- | | | |
|--------------|-------------|-------------|
| 한 해 숙(탈런트) | 김 수 희(가수) | 장 광 석(바리톤) |
| 임 지 연(미스코리아) | 조 영 주(소프라노) | 김 나 비(살풀이춤) |

장소 :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288-2
 문의 : 02)928-1331(서울 종무소), 041)552-9666(천안 종무소) www.buphwajungsa.or.kr